

투데이 칼럼

CEO의 Speech 기본

21 세기는 누구나 개성이 뚜렷한 시대다. 누구나 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스피치(화법과 화술)로 호감을 갖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청중(상대)에게 첫인상부터 리더스럽게 보여야 한다. 최고경영자(CEO)들은 스피치를 실행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지 마라. 숨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람은 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시선을 부딪치는 것은 교감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청중을 앞에 두고 시선을 원고에 고정시킨 채 줄 줄 읽어 내려간다면 그 스피치는 실패할 게 분명하다.

둘째 청중의 시선을 피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중에는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일종의 기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다. 무수히 날아와 찔리는 날카로운 시선들에 겁먹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시선을 차분히 받아들여라.

셋째 준비 안 된 차림새로 청중 앞에 서지 마라. 중요한 모임에 옷이나 짜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짜증이 났던 경험이 누구나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스피치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중요

한 스피치가 있다면 전날 어떤 옷을 입을지, 머리는 어떻게 손질할지 미리 예행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모습에 흠족해야 당황하지 않고 '스피치'에 온 신경을 쏟아 부을 수 있다.

넷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스피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몸을 앞뒤로 움직이고 손을 어디에 뭉치 몰라 한다면 청중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확신을 주지 못한다.

다리를 크게 떠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제스처는 청중을 집중시키고 스피치의 효과를 크게 하지 못 불안해 보이는 몸짓은 스피치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연습 없이 스피치 하지 마라. 수백, 수천 번의 경험을 가진 연사라 해도 준비 없이 올라가서는 100퍼센트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더구나 각계의 전문가가 모인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뮤지션이라도

공연에 앞서 반드시 악기를 점검하고 리허설을 한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경직된 자세는 피하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군인처럼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좋은 연사는 자신의 소리와 몸을 하나의 악기처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한 번 몸을 움직여주고, 이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칠판을 가리키고 하는 식으로 몸짓을 잘 사용하면 150퍼센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곱째 시각 자료를 그대로 읽지 마라. 청중도 눈이 있다.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읽을 거라면 연사가 굳이 필요 없다. 파워포인트에 나타나지 않은 설명들, 일화 등을 군데군데 배치해서 이야기 한다면 집중도는 더욱 높아진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라면 더욱 좋다.

여덟째 길게 말하지 마라. 길게 말하는 것이 강조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은 18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같은 주제라면 3분 이상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주제로 살짝 방향을 전환해 이야기에 탄력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홉째 흥미를 유발하라. 첫 문장은 글을 이끌어낼 운명적인 만남 같은 것이라고 말한 작가가 있다. 청중을 향해 던지는 스피치의 시작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 시간 내내 스피치에 빠지게 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루하고 따분할 거란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서론에서 왜 이 스피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고 강한 느낌을 전해줘야 한다.

열 번째 마무리를 명확하게 하라. 55분 동안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5분 동안 허둥지둥 마무리한다면 청중은 허무한 5분만을 떠올릴지 모른다. 보통 주요한 내용을 연설 중간에 넣지만 청중이 기억하는 것은 마무리다. 스피치의 한두 가지 핵심 주장을 명확히 하고 마치고 말라.

이렇게 스피치를 실행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믿음직한 CEO로서 성공할 수 있고 사업 및 기관 운영에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경영과 인간 관계에서도 효과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김양욱

한국스피치컨설팅 대표



사설

도내 도시지역 고용률 너무 낮다

전북도의 시 단위 지자체에게 물어볼 게 있다.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다. 본보는 엇그제 비정규 일자리만 늘고 있는데 방관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제 틀린 지적이 아니었다. 통계청의 2015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고용 지표 집계 결과 가 보여주는 게 있다. 고용 협조를 매번 호소했던 만 그제 소구에 경외기였던 모양이다.

도내에 정규 일자리가 태부족인 지금, 시 단위 지자체는 책임을 질감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주시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전주시의 고용률은 저조해도 너무 저조했다. 7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전국 77개 시군의 고용현황 실적을 파악한 결과 최하위 수준임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동두천이 전국 꼴지를 해줘서 그나마 큰 창피를 면한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전주시의 고용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말이 안된다. 고용 활성화 분위기에 편승했으면 서로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음이 드러났으니 보통 배신이 아니다.

도내 각 도시 지역은 장수군의 모범에서 배워야 한다. 장수군

이 어떤 지역인가. 고용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데도 장수군이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전주시의 고용률이 53.1%인데 반해서 장수군은 73.6%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도 전주시와 오십보백보의 수준이므로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유명 기업 관계자들은 정직한 눈을 가져야 한다.

저번에 도내 비정규 직장의 비율이 40%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다. 단언컨대 비정규 직장인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정규 직장의 비율이 40%였을 때의 보도 내용이 시사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비정규 직장인은 9천명이 늘고 정규직장은 3천명이 줄었으니 말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정규 일자리 만들기는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별로임에도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다들 관용은 일자리 만들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겠다.

산지 농촌지역 인구유출 심각

산지 농촌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갈수록 농촌 쇠퇴 현상이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 20가구 미만의 마을이 1027곳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의 현황은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오랜 고민이 되고 있는 터에 쇠퇴 현상까지 겹치고 있으니 문제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은 이번에도 도내 선거구가 11곳에서 10곳으로 줄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3개군이 심각한데 다 합친 인구수가 완주군 하나보다도 2만 명 정도가 적다.

본보는 전북도의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이 궁금하다. 어떻게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주 환경부터 정비해야 한다. 현지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와 정착하려는 이들을 위해서도 주거 환경개선은 시급하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보다 많아져야 한다. 이번에 장수군을 비롯해 진안군

과 무주군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제 실제 상황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오래 전부터 본보는 호남의 거주 인구가 충청 지역의 거주 인구보다 적다고 지적했었거니와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호남과 충청의 입장이 온통 뒤 바뀌게 될 것이 뻔하다. 도내 인구의 감소 이유는 분명하다. 유출 인구가 전주나 익산 등 도내 도시권으로 유입되기 보다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마을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소득기반 사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 농촌 지역의 소득 기반 사업을 늘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예전에 도내 농촌 마을 쇠퇴화가 고민이 되고 있는 중에 진안군이 특히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소화 현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독자제언

낮에도 전조등 켜 교통사고 예방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전조등은 비가 올 때 야간에 주행할 때 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실험결과를 보면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했을 때 운전자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되고 마주 오는 차량은 전조등의 주의를 끌어 졸음운전이나 중앙선침범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보다 쉽게 인식시켜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예전부터 미국과 영국, 발칸 반도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등 주간에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 한 나라가 많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낮에 왜전조등을 켜냐, '기름을 많이 먹는다.' 등

의 이유로 낮에 전조등 켜는 것을 꺼려한다. 하지만 실제로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는 것은 배터리와 연료 소모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반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10%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시동을 켜는 것과 동시에 전조등이 켜지도록 의무화가 됐지만 그 이전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은 아직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낮에 전조등을 켜 재 운행한다면 멀리서도 내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교통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임도훈 익산 평화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자 미래의 자산

지난 2013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울산계모사건과 철곡계모사건 그리고 최근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유기사건, 인천의 11살 어린이 감금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온 세상에 알린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과 국민들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으로써 종전의 솥방망이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상해 및 상습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함으로써 사인에 경중에 따라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은 임시 후견인을 지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할 법정대리인 공백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특례법이 강한 처벌과 제재만으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 내에서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화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경사 조영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